

1. 1980년대 수원미술계 동향

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수원지역 미술계는 다양한 분화를 보였다. 기존 예총의 인천과 경기권의 분리를 시작으로 한 일련의 변화는 한국화부분의 그룹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미술그룹의 등장과 기획전을 통한 주제적 성격을 갖는 전시가 이뤄졌다. 산업시설의 증가는 인구의 유입과 함께 예술 관련대학의(7개의 4년제 대학에4개의 전문대학) 증가를 가져왔고, 시각예술관련 미술학원, 화방, 전시공간들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 되는 시절이다. 이는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에 근거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제사회적 요건 등에 변화가 시작되면서 70년대와는 다른 지역 환경이 조성되었다. 8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다양한 시각예술전공학과가 개설되고, 크고 작은 기업이 들어서면서 산업화 증가 속도만큼 입시 미술학원의 증가를 가져온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서구 중심적 미학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들에 대한 반성적 요구들이 개선되는 시점이 80년대에 들어 지역에 현상으로 본다. 한편으로 인구 40-50만의 70년대에 활동한 미술교사회와 경기청년미술가회의 활동들이 수원미술 계의 기초 다지기로 볼 수 있으나, 외적 요인인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도 한 부분으로 본다. 수원미술계가 점차적으로 현대미술의 삭을 띄워가는 시기가 80년대다. 이시기 활동 그룹으로 시작회(1983), 시점시점(1984), 일구 팔이일이회(1982), 성목회(1982), 관화모임판(1986), 수문연시각예술위원회(1987),새벽(1988),경기구성작가회(1988) 경기현대작가회(1988), 수리미술연구소(1988),수원지역미술학우회(1988)시맥(1990) 등이다. 수원문화원에서 진행된 문예교실 <문미회>와, 수원일요화가회, 수원사생회등은 사회 아마추어 미술문화 단체들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미술문화를 넓혀가는 시기였다.

당시 전시공간으로 단체전과 개인전을 소화한 전시장으로는 크로바 백화점 전시실 (현 팔달문 남문시장 입구),선화랑 (필달문 백병원 앞),수원문화원전시실(수원여성회관내),공간사랑(남문 화성성곽관광안내소 앞)등이다.

관화모임 판 (도1)

2. 수원문화운동연합 내 시각예술위원회와 미술동인 새벽으로 결성

지역문예운동의 뿌리의 태동은 80년대라는 공간이 내포한 모순되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부터다. <수원문화운동연합> 수문연건설이 의미하는 당시대적 여건은 정치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구조적 민주화와 독재 군부정권에 대한 거부감의 현실화가 주된 이슈로 넘나들던 시기였다.

1987년의 항쟁을 계기로 표면화된 지역 문예인들의 사명은 이러한 재 현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현장성을 살리는 문예실천 쪽에 비중을 두었다. 박영목 목사가 재임하던 동수원교회에서 창립식을 가지며 출발되었다.

참여부분으로는 문학, 미술, 풍물, 노래패 등으로 문학과 미술이 지역 작가 활동의 인자 등으로 출발하였다면, 풍물과 노래패는 지역대학의 문예활동 학생들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화공간 샅터는 수원문화운동연합이 창단에서부터 폐회까지 명칭으로 일터와 쉼터, 놀이터등 생활이 살아 숨쉬는 일상의 터전 속에 풍물이 가진 현장성과 민주성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풍물굿패 샅터로 개칭하며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풍물에 이성호, 김석환 등이 활동인자들이다. 노래패에는 한신대<보라섬>,서울농대<메아리>,경기대<비나리>등 강남대<시내터>등이 활동하였고, 문학에 용한신, 정금풍, 강구선, 이상훈, 이종구, 김경수 등이 “백성”이라는 표제의 기관지를 2회 발간하며 활동하였다,

시각예술위원회는 나눔미술분과와 열림미술 분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했다. 미술에 청년작가 활동으로 이주영<서양화>, 최춘일,<동양화>, 손문상<웹툰>, 김영기<서양화> 등이 활동에 나서고. 지역대학에서는 87년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의 민중미술이란? 주제의 나원식 <문예운동가> 초청강연에 지역작가들이 합류하며, 시각예술운동에 고양되며 힘들이 모아졌다. 노동미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미술교육, 전문 창작집단 지원, 걸개그림, 벽화, 영정제작, 생활미술운동이 주된 관심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초기의 문예운동의 동력들이 구동되기에는 지역의 문예운동의 인원과 사회문화구조 등으로 짧은 시간에 갖추어지고 확대되기에는 보수적 문예정서와 화단의 정서적 대립 등으로 어려웠다.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의 활동인자들인 최춘일,이주영,이병렬<공예>,이억배<그림책동화>,김영기,손문상, 등은 20대 중반의 젊은 미술인들이었다. 이들이 86년 판화모임 판을 결성하고 대동여지도를 응용한 한반도 지도와 민초들의 삶을 형상화하는 대작의 판들을 제작하여 강연회 공간에 전시하고, 인사동 “그림마당민”의 전시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들의 지역 미술에 대한 시각이 발화되면서 미술운동으로 모아지기까지는 지역문예운동사와 맥을 같이한다. 수문연은 87년 이후 3년여의 활동 속에 문학, 미술, 풍물등의 부분별로 전문화된 문예를 지양하며 간다는 취지를 살리며 해체 하였고, 분야별 활동 작가들의 고양된 민주의식과 함께 다시 서게 된다.

1988년 7월부터 남문딕시랜드에서 일군의 미술작가들이 모임을 통해 어두

움 속에서 동 터 오르는 형상을 비유하여, 새벽이라는 미술동인을 탄생하게 된다. 12회의 모임을 지속하며 결성된 미술동인은 분명하고 선명한 미술활동을 천명하였다.

미술동인 새벽의 결성배경으로는 문화운동성격의 “수문연”이 추구하는 함의에도 보수적 문화현장이 팽배한 지형에 오랜 시간 수직문화에 길들여진 사회 전반적 의식 속에 진보지향의 문화실천가들의 활동인 현장실천의 동력이 제한되고 약화되는 것이 원인이다. 결국 수문연 해체로 촉발된 미술운동의 시발은 보다 전문성과 자기전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춘 미술전문 동인 1988년<새벽>의 결성과 89년 미술동인 새벽의 창립전과 연대전, <안양 오늘이 땅>전을 추진하며 이어졌다. 수원의 젊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된 새벽은 사회적 현실문제와 비판성을 가지고 작업을 전개하였다.

새벽은 창립선언문에서 “제도미술문화정책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냉엄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의 모색으로 자주적 창조와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문화를 대변하여 우리 모두의 참다운 문화로 정착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미술형식과 내용을 가꾸어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문화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균형을 이루며 학습을 통한 자기완성의 끊임 없는 모색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마련하여 미술의 사회적 책임과 작가 개인의 실천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인이 될 것이다”로 천명하고 미술문화의 보수적 성향으로 반영되지 않은 제 현실에 대한 실천 미술선언에 다름 아니다.

제1회 미술전이 수원 남문 크로바 백화점 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회원들의 신작에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출품되었고, 부분별로 회화, 판화, 사진, 공예 등의 작품 30여점 등이 전시되었다. 4월 신록사 MT를 통해 민족미술의 나아갈 길에 대한 동인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러한 열기는 10월 수원미술제와 안양우리들의 땅과의 연대 전으로 이어졌다. 89년<오늘이 땅 전>과 90년의<정치, 정치, 정치>전 등의 2회정기전을 치르며, 활동한 새벽은 지역미술운동의 모색이라는 기초를 다지는데 전력 하였다. 또한 타 단체와의 연대전(안양, 청주)과 사회, 정치적인 이슈와 이를 문화적으로 실천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이시기 활동회원의 구성은 권용택, 박경수, 박태균, 박준모, 손문상, 서동수, 신경숙, 이병렬, 이주영, 이오연, 이금숙, 양순희, 양혜영, 황호경, 최익선, 최춘일 등이다.

3. 새벽의 해체, 수원민족미술인협의회로의 조직개편과 활동

미술동인 새벽이 동인구조로서는 지역에 산적한 문화요구와 참여에 한계 등

이 노정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91년 수원민족미술인협의회는 새벽동인의 회원과 지역 대학 미술패, 미술인들을 아우르며,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회원 구조를 분야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성화에 전력하였다.

이를 기조로 창립전과 함께 초청강연회를 수원남문에 있던 선화랑에서 열었다. 주제는 “지역미술운동과 민족, 민중미술운동에 대하여..” 로 미술평론가 유흥준 선생의 강연회로 기획 되었다. 수미협은 창립선언문에서 “지역미술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질적 발전과 꾸준한 창작실천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성과를 확대 시켜나가기 위해 이제까지의 민족, 민중 미술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더욱 심화된 창작내용과 표현의 풍부함을 얻어 나아가갈 것이며, 다양한 사업과 발표회를 통하여 지역대중과 지속적이고 신선한 만남의 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미협은 지역미술인들의 대중적 합의체로서 내부의 다양한 예술관의 차이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수미협의 노력에 동의하는 한 창작의 방법과 그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호의 개방과 연대의 노력은 당면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진지한 대안 마련을 통해 지역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미협의 과제들은 지역 주체인 지역대중의 삶을 반영하고 그 삶과 함께하는 미술형식과 내용을 가꾸어 지역대중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며 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에서 보이듯 당시 사회변혁 일반과 아울러 지역미술의 문제의식을 표방하였다.

수원미술인협의회 기관지의 발간사에서 지역미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문제의식을 공표하고 있다.

“창작활동에 대한 자기정립의 한 과정 및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전망의 모색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파행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된 미술계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매우 소중한 실천의 과정이다.” (수미협 기관지 창간호) 수원미술인협의회기관지(도2)

1991년 미술운동차원의 보다 확대된 협의체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실을 장안구 고등동 150-21번지(수여고 골목)에 열었다. 회화1,2분과, 생활 미술분과, 조소 예비분과, 만화분과, 사진 분과로 정비하였다.

생활 미술분과에 이병렬, 최익선등과, 만화분과에- 손문상, 윤기현, 사진분

과에- 강경희, 조소분과에- 이금숙 등으로 동서양화의 회화1,2분과와 함께 회원개개인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소그룹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노동자문예활동가 조직인 ‘노동미술연구소 “미술운동의 기동성과 현장성을 위한 ” 현장 미술패 “ 노동 상담소 지원 등은 특위구성을 통해 참여회원들을 견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내던 시기였다. 노동미술연구소에는 손문상, <웹툰>, 황호경<서양화>, 신경숙<서양화> 등이 활동하였고, 지역의 노동자 문예지원의 확대와 공동창작에 대한 토론과 전문미술인 파견을 통한 미술교실 등이 모색되었다.

현장 미술 패는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작품제작에 참여하며, 91년 고 박창수 열사 장례식을 위한 설치물 제작과 박창수 열사 투쟁도, 부활도의 제작 시위현장에 필요한 미술품의 제작, 걸개의 제작 등 이였으며, 현장노동자 미술지원도 병행했다. 활동 회원들로는 최춘일<동양화>, 김영기<서양화>, 차진환<서양화>, 류우중<서양화>, 이병렬<생활공예>, 최익선<목공예>, 신경숙<서양화>, 이금숙<서양화>, 이오연<서양화>, 이주영<서양화>등 과 노동 상담소 간사에 서동수<서양화>등이 활동하였고. 수원 선화랑과 서울 그림마당민에서 열린 오늘 이 땅전은 창작력 강화 측면인 창립선언문과 함께 수미협이 활동을 예견하는 전시가 되었다. 권용택 회원을 주축으로 한 회화1,2분과는 개개인 창작력 확대를 통한 미술전문가 집단의 위상과 전망, 창작에 대한 모색을 가시화하였다. 각 분과회원들이 참여한 수미협 창립전은 박종훈<서양화>, 양혜영<동양화>, 이달훈<미술교육>, 이금숙<조각>, 주영광<서양화>, 김순희<미술교육>, 박경수<동양화>, 류우중<동양화>, 임종길<미술교육>, 권성택<미술교육>, 이오연<서양화> 등으로 사회변혁 일반과 함께 지역미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방해 나간다. 기획전으로는 환경미술전(선화랑), 사진분과 전(선화랑), 경기남부 통일 연대 걸개 제작 등이 이었다.

87년 민주화운동을 기폭으로 지역문예에 새로운 열기가 돌아오고, 기존 문화예술계에 필요 충분한 환경으로서, 미술동인 새벽이 태동된 것은 지역문예에 있어 실천과 표현으로서 미학에 출발이 되었고, 크고 작은 전시와 문화현장, 골목에 동인들의 활동이 있었다.

박창수열사투쟁도(도3)

4. 80년대 수문연과 새벽의 활동이 수원미술계의 상황에서의 역할과 의미

수원지역의 민족미술운동이 수원문화운동연합의 시각미술위에서 전문미술인들의 참여가 모태가 되어 미술동인 새벽 창립선언을 통해 지역민족미술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는 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 되어야하고, 당시의 지역정치, 문예환경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자전과 미협

전, 자연주의적 경향과 실험적현대 미술에 관심이 전부였던 시기에 삶과 현실에 주목하는 리얼리스트 문예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역 문예구조 속에 커다란 반향이었다. 당시 지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가파른 정세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산적해오는 지역의 대소사들이 동인구조에서 해결될 수 없었다. 가투가 빈번하고 파업이 자주 열린 시간 속에서의 현장문예의 활동이 개인 창작에 앞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였고, (아주파이프 현장 지원, 결개와 깃발, 아주대 결개, 기아 결개, 고 박창수 열사 장래식 부활도 및 입체홍보물 등등)과 회원개인의 창작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조직정비를 서두른 91년의 수원미술인협의회에서는 그 반영의 결과로 소그룹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조직체계가 가꾸지기 전의 협의체를 통한 대안 점 들이 인적구성과 역량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소그룹의 회원들의 열정이 사회변혁으로의 관점에 우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성과 연계된 시각적 생산물들에 결과 되는 활동들은 정체되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회화 1,2분과의 정기전과 환경전을 통한 창작물들과 생활미술의 이병렬, 최익선등의 열림공방<최춘일 화실공간>을 통한 목가구와 생활미술 프로그램, 사진의 기록과 현장성을 중시한 활동과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작품, 최춘일, 강경희, 강석우등의 사실35 활동과 전시, 만화의 손문상(새한일보만평), 윤기현(중부일보만평)회원 등의 지역신문을 통한 만평 등은 당시대의 전위로서 열정 그 자체였다. 이러한 시각적 결과물들과 창작물들에 대한 열정에도, 회원들 각자의 시간적 흐름, 정치지형의 변죽과, 시대의 변혁을 위한 다양한 갈래의 요구들은 그 열정을 늘 앞서 갔다. 그럼에도 이시기 미술인들의 실천행동은 지역미술운동의 핵심이었다. 이시기 참여회원들의 구성은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미술패 활동을 통한 확충된 인자들과 수원지역미술학생회, 진보적 성향의 작가들이 함께하였다. 이러한 경과는 86-87년 지역의 민족민중미술운동의 초청강연회와 수원지역 시민단체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며 진행되었다. 다양한 문예 분야에서와 미술의 대 사회적 기능이 민주사회를 염원하고 변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당 시대적 과제에 외압과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역미술운동이 한 발작씩 행보하였던 것이다.

80년대 수원문화운동연합과 새벽활동연보

- 1986. 목관화모임 판 활동
- 1987 수원문화운동연합 창립 (동수원교회)
문학<백성1>간행

- 수문연시각예술위원회 활동
1988. 7.30 1차(딕시랜드) -12차모임-준비모임
새벽창립
1989. 4.7일 제1회 미술동인 전람회(크로바백화점)
4.22 M.T 신록사
10.27 수원미술제
안양(우리들의 땅 연대전)
1990. 5 .25-29 정기전 정치, 정치, 정치.. 전(선화랑)
8.11-12 광주망월동성지순례
10.22-23 안양(우리들의 땅 연대전)
12.1 수원시민 송년문화대잔치 전시-경기대학교
12.21 불교청년회 작품전(포교당)
12.29 정기총회(자명미술학원)
농민미술전참여(그림마당민)
권용택 개인전 (서울. 그림마당 민/수원. 선화랑)
1991. 4.220-24 수원 미술인 협의회 창립전(선화랑)
5.3-5.9 창립전 서울(그림마당민)
6.26-29 박창수 열사노제 부활도 및 영정제작
7.721 MT(그린파크)
8.31 수미협기관지 발행-회원 동정,분과소식,
9.20 민족미술인대회참가
10.6 수미협야유회
경기남부통일한마당 걸개제작
이음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사진분과전(선화랑)
환경미술전(선화랑)
모인공방이-솟대공방으로 명칭변경
(이병렬, 최익선회원운영)